

# 하안양옥집, '아동권리' 전시 발길 이어져

전북문화관광재단, 1~6일 황금연휴 기간 누적 관람객 5272명... 체험형 전시·연계 행사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이 운영하는 문화공간 하안양옥집이 황금연휴 기간 '아동권리'라는 사회적 의제를 문화예술로 담아낸 참여형 전시기획으로 5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주목을 받았다.

12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하안양옥집을 찾은 관람객이 총 5,2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정의 달을 맞아 국제아동권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해 기획한 특별전시 '우리가 만든 놀이터'와 전시 연계 행사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전시는 관람객이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직접 보고, 생각하며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호평을 받았다. 특히 전시와 함께 진행된 참여형 아동극 '엘리스와 무지개 지니'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고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는 공감의 시간을 제공했다.

전시를 찾은 관람객은 "아이와 함께 작품을 통해 권리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단 관계자는 "하안양옥집은 문화예술을 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문화공간 하안양옥집이 황금연휴 기간 '아동권리'라는 사회적 의제를 문화예술로 담아낸 참여형 전시기획으로 5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주목을 받았다.

순히 소비하는 공간이 아닌, 멈춰 서서 함께 생각하고 참여하는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획을 통해 공공 문화공간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안양옥집은 지난해 5월 개관 후 8개월간 누적 관람객 3만 7천여 명을 기록했다.

오는 17일 저녁 7시 30분에는 하안양옥집 아

외 마당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 '이세계소년'이 상영되며, 상영 후에는 네마 톡 콘서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jct.or.kr)과 SNS(인스타그램 new.jct.m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예술회관운영팀(063-230-4231)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5·18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 추모전

전북대, 31일까지 유품 40여 점 전시... 민주화 운동 역사 되새겨

5·18 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인 고(故) 이세종 열사의 삶을 기리는 추모전이 그의 모교인 전북대학교에서 열린다.

전북대 기록·역사관과 전북대학교박물관은 5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故 이세종 열사 추모전'을 12~31일까지 전북대 박물관 1층 중앙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세종 열사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생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1980년 5월의 참혹했던 현장을 담은 유품 40여 점이 공개될 예정이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학창 시절 이세종 열사의 사진과 수첩표, 19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 등이 전시돼 당시 젊은이의 일상과 시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2부에서는 열사가 사망 당시 입고 있었던 피 묻은 의복과 교기, 면장갑 등을 통해 그 날의 비극과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의미를 전달한다.

3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이후 이세종 열사를 기억하고자 했던 다양한 노력들을 담았다. 1994년과 1995년 졸업앨범과 이세종 광장 조성 과정, 추모비 건립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추모의 발자취를 소개한다.



한편 이세종 열사는 전북대 농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18일 새벽 1시, 제1학생회관에서 농성을 벌이다 진입한 7공수 부대원들에게 쫓겨 옥상으로 올라간 뒤 추락해 쓰러진 주검으로 발견됐다. 불의에 맞서 싸우다 숨을 거둔 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로 기록되며, 이후 전국적 향정의 도화선이 된 상징적 인물로 역사에 남았다. /장은성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광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인턴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인턴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도내 관광기업과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연계, 관광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기간은 21일까지며,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에 관심 있는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다. 다만,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근무 시작 전까지 주소지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 기업은 여행업, 국제회의업, 문화행사 분야의 도내 관광기업 13개사로, 인턴 근무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총 3개월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턴 1인 기준 최대 3개월 간 월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2개월 간 월 140만 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된다.

참여 인턴에게는 직무 적응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이 제공되며, 기업의 내부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인턴십 종료 후에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관광 전문 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장은성 기자

# 남원시, 사매면 서도역서 현대무용 '다시 간이역에서' 공연

남원시가 사매면 서도역에서 수준 높은 현대무용공연 '다시 간이역에서'를 선보인다.

이 공연은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작품으로, 남원시와 김화속현대무용단 사포가 협업하여 무용 공연을 제작했다.

서도역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장소인 서도역에서 모티브를 얻어 과거의 번영과 현재의 삶을 연결하며, 각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위로를 전달하는 공연이며, 서도역의 역사적 배경과 자연경관이



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작품에 녹아들어 독특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한다.

'다시 간이역에서' 공연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5월 17일, 18일, 24일, 25일, 10월 25일, 26일에 각각 개최되며 연령 제한 없는 무료 공연으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28일 소설가 공지영 초청 '다담'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8일 오후 7시,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함께하는 국악콘서트 <다담(茶談)>을 개최한다.

5월의 이야기 손님으로는 소설가 공지영이 초청되어 '상처에서 피는 꽃'을 주제로, 삶과 문학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관객과 나누게 되며, 공지영 작가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도가니 등의 화제작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와 깊은 감성의 서사를 전해는 대한민국 대표 소설가로, 이번 무대에서는 상처와 치유, 그리고 인간다움에

대한 통찰을 문학으로 풀어내며, 관객에게 따뜻한 위로와 성찰의 시간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은 우리음악 즐기 순서로,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의 운영진(몽룡), 서진희(춘향), 서은기(고수)가 무대에 올라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을 들려준다.

이번 공연은 50석 규모로 선착순 무료로 진행되고, 14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 카카오톡 채널(국립민속국악원 친구 추가) 전화(063-620-2329)로 신청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무주산골영화제 온라인 예매 시작

오늘 오후 2시부터 일반 실내상영·토킹시네마·산골토크

초여름의 낭만이 가득한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가 개막작과 전체 프로그램을 공개해 기대감을 더한 가운데 13일부터 온라인 티켓 예매를 시작한다.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가 13일 오후 2시부터 일반 실내상영과 토킹시네마/산골토크 온라인 티켓 예매를 시작한다. 티켓 가격은 (실내) 일반 상영작 편당 6,000원, 토킹시네마/산골토크는 편당 15,000원이다. 실내상영작은 각 상영관 입구에서 모바일 티켓(QR코드)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하다. 무주드나무운동장 1일 입장권은 1일 30,000원으로 오는 5월 14일(수)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며, 영화제 현장 티켓부스에서 반드시 입장 팔찌로 교환, 착용해야 무주드나무운동장 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이 보다 수월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숙박과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 패키지 상품도 5월 14일(수) 오후 2시에 함께 선보인다. '숙박 패키지'와 '교통 패키지'는 네이버 예약을 통해 선착순 예매 가능하다.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티켓 예매 오픈

한편, 무주군민 대상으로 무주드나무운동장 1일 입장권 무료 사전신청 시스템을 올해 처음 도입한다. 5월 14일(수)부터 26일(월)까지 무주군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후 무주군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혹은 무주산골영화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주군민 본인에 한해 1일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대체불가능한 초여름의 영화 축제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6일(금)부터 8일(일)까지 총 3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단간을 들었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단간을 들었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